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병에 담긴 오늘을 마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유진 그림 작가/한라경 글 작가의 '오늘 상회' 그림책에 들어 있는 문장이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을 맞이한다.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 필자의 오늘 시작은 시계를 본다.

그림책 선물을 받았다. '오늘 상회'라는 그림책이다. 마음을 묵직하게 한다. 오늘 상회는 날마다 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을 낭비한다.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삶이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좋은 오늘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다. 어떤 이는 포기하고 싶은 오늘도 있다. 그러나 힘들던 좋은 나쁘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다. 매일 매일 살아가는 일상 중에 오늘은 소중하게 산다는 것을 중요

하다. 그림책 작가는 오늘이라는 한 점한 점이 모여 소중한 삶이 된다는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오늘 상회를 거쳐야 한다. 어린 날은 웃고 떠드는 사이 오늘이 금방 지나가버린다. 성장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바쁜 일상에서 지내다 때로는 함께 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오늘이 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른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의 이야기를 펼쳐본다. A는 달력을 바라본다. 오늘은 깊은 슬픔이 다시 찾아온 날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 세상으로 떠난 날이다.

아들을 먼저 보낸 A는 바람이 된 아들이 있는 강에 간다. 그 강물이 A 부르는 날이 몇 해였는가? 그 힘든 삶을 버려준 A의 오늘을 응원해 본다.

'오늘 상회'

B의 오늘은 가슴이 찢어진다. MZ 세대인 B는 바쁜 나날을 살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과 싸우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의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B는 아이의 행동이 엄마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B는 자신의 아픈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B에게 보여주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니 가슴이 패어지는 오늘을 만난 것이다. B는 진정한 삶은 소중한 사람끼리 행복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C는 오늘이 정말 감사한 날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합격 소식이 날아온 것이다. C는 오늘의 합격장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도서관을 싸 들고 도서관을 찾아서 시간을 투자

했으며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했던 덕이다. 자신이 부단한 노력을 한 하루하루가 오늘을 만든 것이다. C는 합격 통지 문자를 보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오늘이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오늘을 무료하기 짝이 없는 오늘이지만, 누군가의 오늘은 삶이 충만한 오늘이다. 열이면 열 사람의 오늘이 다르고, 백이면 백 사람의 오늘이 다르다.

'오늘 상회'에서는 오늘을 팔지만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소중한 삶을 위한 오늘을 위해 어떤 이는 새벽부터 준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잠에 빠져 오늘을 그냥 보내버리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일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엄마의 '일어나렴.'이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상회라는 그림책을 보다가 나태주 시인의 '오늘 하루'라는 시를 만나본다.

'자 오늘은 이만 지러 갑시다/ 오늘도 이것으로 좋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아내 방으로 가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나는 내방으로 와서 책 읽다가 잠이 든다/ 우리는 내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아내는 아내 방에서 코를 조그맣게 골면서 자고/ 나는 내방에서 꿈을 꾸며 잔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눈물겨운 꼭짓이고/ 서러운 노릇이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오늘 하루 좋았다 아름다웠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동안/ 이런 날 이런 저녁을 함께 할 것인가?' 오늘 하루 시를 보면서 오늘을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노년의 시인은 오늘은 정말 소중한 하루, 행여나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해져 온다. 오늘 상회의 작가의 말처럼 한 점 한 점 오늘이라는 붓질이 모여 아름다운 삶이 채워지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여름철 차량침수 피해 대처방법

여름은 햇볕이 쨍쨍 내리 쬐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침수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도로의 구조상으로 양쪽 가장자리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덮치게 되므로 정말 위험하다.

갑작스런 차량 침수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첫째 차량의 바닥까지 물이 고인 경우에는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기. ▶배터리 단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오염된 부분을 수돗물로 세척한다.

둘째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마찰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동을 걸어서는 안됨.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시켜 작동 부분을 건조 시킨다.

셋째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불가능하면 미리 창문이나 천루프를 열어 둘 것). ▶시동이 꺼지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 ▶저속 및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침수되어 차량문이 안 열리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기 (비상탈출망치, 목반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장치 등).

▶차량 창문을 썰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차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림.

▶지하차도에서 침수 시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고 119 연락하기. ▶급류에 차량 고립 시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문을 열고 탈출하기 등이다.

특히 침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절대 접근하면 위험하다.

/이현(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작은 담배 불씨도 대형 화재의 원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담배꽂초가 절반 가까이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광주 119상황실 통계기준에 따르면 올 한 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주의 화재발생 174건으로 그 중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발생은 71건으로 40.8%의 비율로 차지했다.

주요원인으로는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발화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주요 예방 방법으로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 근처에서는 금연 ▲보행

중에는 금연하고 꽂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꽂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기 ▲"흡연구역"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로 지정 ▲담배를 피우다가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기 ▲잠자리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등이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 있듯이 꺼진 담뱃불도 확인하고 버려야 한다. "나 하나쯤은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겠지" 하는 부주의한 생각은 버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서 흡연자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상혁(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장마철 안전을 위한 대처법 숙지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폭우로 인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빗길 운전뿐 아니라 가정집 그리고 건설 현장 등 모든 곳에서 장마철에 대한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강우량의 지역 편차 또한

심해지고 있어, 대비가 없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첫째 호우주의보 및 경보 때는 폭우로 인해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전봇대 같은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건설 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 추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빗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을 철저히 설치하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셋째 논·밭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논·밭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농촌이나 집 주변의 배수로를 장마 전 미리 점검 하고 호우주의보 발생 시에는 발일을 위한 야외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위에 방법이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겠지만,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을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은 될 수 있다.

이런 작은 행동 또한 사고를 막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보자.

/이승환(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background and promotional text.